

■ 2026 새해설계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전국체전 준비 본격화…명품 스포츠도시 실현한다”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 등 5대 분야 목표 설정 AI 기반 스마트행정 시스템·시민 참여 확대도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시민과 함께하는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 실현’을 비전으로 엘리트 체육 경쟁력 강화와 시민 체육 복지 확대, 2028년 전국체전 개최 준비 등 분야별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엘리트·학교체육 경쟁력 강화, 시민 참여 확대와 균형 있는 체육복지 실현,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체계 구축,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체육시설 운영, 2028 전국체전 성공 개최 기반 조성 등 5대 분야 28개 추진과제 완료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회장은 먼저 학교체육을 기반으로 한 지역

인재 발굴·육성과 종목단체 지원 강화를 통해 경기력 향상과 자립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엘리트체육의 근간인 학교체육이 정립돼야 광주체육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 이를 기반으로 오는 제107회 전국체전에서 10위권을 목표로 대표선수를 육성·선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서 부상 방지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광주체육의 경쟁력을 높인다.

시민 참여 확대와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역시 제공한다. 특히 대한체육회 및 스포츠클럽 사업 등 공모사업에 도

전해 국비 확보에 주력하고, 5개 구체육회 주최 대회를 확대해 시민 누구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스포츠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체육행정에서도 혁신을 도모한다. 사회적 변화에 맞춰 AI 기반 스마트 행정 시스템 도입, 투명한 예산·회계·계약 관리,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청렴·공정성 강화 등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체육행정을 구현한다. 특히 12월에 있을 민선 3기 체육회장 선거를 대비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쾌적한 체육시설물 관리에도 힘쓴다. 염주종합체육관, 월드컵경기장, 무등야구장 등 시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개보수와 개방 확대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제공한다. 또 화재, 인명사고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해 재난 및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시설별 안전관리

매뉴얼을 두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안전사고 제로를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2028 광주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해 전담 부서 구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종목별 선수 경기력 향상 프로그램 강화, 시민 참여 늘 조성, 경기장 시설 확보 및 개보수 등 단계별 준비를 본격화한다. 특히 21년 만에 광주에서 개최하는 체전인 만큼 대회 ‘운영 분야와 시설 분야’로 나눠 광주 소속(출신) 선수들의 대거 참가 및 광주 관내 모든 체육시설 점검 방안을 꼼꼼히 마련해 나간다는 의지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2026년은 2028 광주 전국체전을 향한 중요한 도약의 해”라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체육, 명품 스포츠도시 광주를 만드는 원년으로 삼고 임직원 모두가 하나 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시체육회,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지정스포츠클럽 역할 강화·단계적 확대 등 추진

광주시체육회가 지속 가능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본격 나선다.

광주시체육회는 6일 지역 주민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2026년도 지정스포츠클럽 확대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계획은 엘리트·생활·학교체육을 연계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해 참여하는 스포츠로 전환하는 등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스포츠클럽 소속 청소년 선수 육성에도 중점을 두고, 생활·학교-엘리트체육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되는 성장 경로를 구축해 지역 스포츠 인재 발굴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자치구에 거점을 둔 구체육회와 등속스포츠클럽과의 협업 체계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 지정스포츠클럽 전환을 희망하는 클럽을 대상으로 업무 매뉴얼 제공, 행정 컨설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정스포츠클럽이 되면 각종 스포츠클럽 국

비사업에 공모할 수 있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도 전액 감면되는 등 조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대한체육회 등 중앙단체 국비 확보 대응을 강화해 지정스포츠클럽 전문선수반 운영, 종목별 특화프로그램 개발 등 스포츠클럽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한다. 이어 전국 단위 스포츠클럽 교류전 참가도 확대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광주 스포츠클럽의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2028년부터 광주에서 열릴 전국(소년)체전에 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광주 개최라는 상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해는 스포츠클럽이 지역 생활체육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국비 공모 대응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지정스포츠클럽 확대와 자립 기반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스포츠클럽 운영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역경 딛고 역전’ 이해인 “팬들의 눈물 상상”

2026 동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출전권 획득

“크나큰 긴장과 맞서 싸워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을 때 많은 분이 행복의 눈물을 흘리면서 손뼉을 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일 마무리된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마지막 프리스케이팅에서 ‘역경 드라마’를 펼치며 극적으로 2026 밀라노·코르티나 달페초 동계 올림픽 피겨 여자 싱글 출전권을 따낸 이해인(20·고려대)의 표정은 여전히 상고에 있었다.

이해인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설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출전권을 따게 돼 너무 기쁘다”라고 웃음을 지었다.

이해인에게 올림픽 무대는 너무나 간절했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선발전에서 탈락했던 이해인은 좌절하지 않고 2023년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을 차지하며 한국 여자 싱글의 ‘에이스’로 입지를 다졌다.

이해인은 2024년 5월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불미스러운 일로 징계를 받아 선수 생활을 끝낼 위기를 맞았지만 법적 다툼 끝에 징계 무효 처분을 받고 이번 올림픽 선발전에 나설 수 있었다.

이해인은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쇼트프로그램까지 전체 3위로 밀려 단 2명에게만 하라된 ‘올림픽 출전권’을 놓칠 수도 있는 벼랑에 몰렸지만, 프리스케이팅에서 반전에 성공하며 2위로 ‘밀라노 행 티켓’을 품었다.

프리스케이팅 연기를 마친 이해인은 한동안 은반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흐느끼며 힘든 시련의 시간을 이겨낸 자신을 위로했다.

이해인은 이를 전 감정을 떠올리며 “그동안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지키는 방법을 배웠고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며 “비록 완벽한 경기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것 같아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긴장도 많이 됐지만 많은 분이 응원해 주시고, ‘이해인 파이팅’을 외쳐주셔서 눈물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열린 전국 남녀 피겨 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 2차 선발전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이해인 연습을 펼치고 있다. 왼쪽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 새해 첫 경기서 역전승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서 캐나다 미셸리에 2-1 승리 16강서 세계선수권 금메달 출신 노조미 오쿠하라와 대결

배드민턴 여왕 안세영(삼성생명)이 새해 첫 경기에서 진땀 승부를 펼치며 역전승을 거뒀다.

여자단식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오픈’ 32강전에서 미셸 리(캐나다·세계랭킹 12위)를 2-1(19-21 21-16 21-18)로 제압했다. 1시간 15분이나 걸린 혈투였다.

안세영은 미셸 리를 상대로 통산 8전 전승을 기록 중이었으나, 이날 시작은 불안했다.

첫 게임 초반 실책이 연달아 나오면서 상대에게 리드를 내줬다. 안세영은 두 차례 역전에 성공했지만,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다. 결국 19-21로 첫 게임을 내줬다.

2게임은 더욱 어려웠다. 초반부터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분위기를 내줬다. 특히 안세영은 무릎

을 쥐고 숨을 몰아쉬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이에 6-11로 뒤진 채 인터벌을 맞이했다.

그러나 경기 재개와 함께 집중력이 살아났다. 순식간에 7연속 득점을 뽑아내며 전세를 뒤집는 세계랭킹 1위의 저력을 뽐냈다. 이후 4번의 시소게임이 이어진 끝에 16-16에서 안세영이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

3게임 역시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안세영은 11-10으로 앞선 채 인터벌을 맞았다. 후반에도 공방이 이어졌으나, 안세영의 뒷심이 빛났다.

14-16으로 밀리던 상황에서 5연속 득점으로 19-16 리드를 잡았다. 이어 상대에게 2점을 허용했으나 곧바로 2점을 만회하면서 승리를 거뒀다.

안세영은 지난 2024년과 2025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하게 된다면 3연패의 금자탑을 쌓는다.

지난해 이미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안세영은 ‘왕중왕전’ 격인 월드투어 파이널스를 비롯해 3개의 슈퍼 1000 시리즈(말레이시아오픈·전영오픈·인도네시아오픈), 6개의 슈퍼 750 시리즈(인도오픈·일본오픈·중국오픈·덴마크오픈·프랑스오픈·호주오픈)와 슈퍼 300 대회 오를레앙 마스터스에서 정상을 밟았다.

이로써 지난해 단일 시즌 역대 최다승 타이 기록(11승)을 올린 것은 물론, 단식 선수 역대 최고 승률(94.8%)과 역대 최고 누적 상금액(100만3175달러)을 모두 경신하며 배드민턴 새 지평을 열었다.

말레이시아오픈 직후 대회인 인도 오픈 출전까지 확정된 안세영은 다시 한번 대기록을 뛰어넘기 위한 일정에 돌입한다. 그는 16강에서 2017년 세계선수권 금메달리스트 일본의 노조미 오쿠하라와 맞붙는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A등급’

5개 분야 종합평가서 최고등급…국비 2억원 확보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2025년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4년에 이어 2025년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유지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정책 추진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번 평가는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된 장애인생활체육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업 운영, 현장 활동, 행정 관리, 정책 반영, 위원회 운영 등 5개 분야에 걸쳐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뤄졌다. 도장애인체육회는 각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최고등급을 획득했다.

도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저

변 확대를 위해 생활체육교실과 동호인클럽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해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또 도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운영하며 체력 평가 및 맞춤형 운동 상담을 제공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체육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다.

임진출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생활체육지원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온 노력이 최고등급 유지라는 값진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체육회와 함께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